

GIST, 우체국금융개발원(PoSID), 금융·AI 융합인재 양성 및 지역 상생 위한 협약 체결

- 11월 24일(월) GIST에서 협약식 개최, 임기철 총장·신대섭 원장 등 참석... GIST 첨단 연구역량과 PoSID 금융·디지털 전문성 결합해 금융·AI 융합 인재 양성 위한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추진
- 산학 교류 확대 및 현장 중심 협력 네트워크 강화, AI 기반 금융혁신 기술 개발·실증 위한 공동연구 본격화도... 지역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과 국가 미래 혁신성장 견인 기대



▲ 11월 24일(월) GIST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GIST와 PoSID 주요 관계자들이 금융·AI 융합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1월 24일(월) GIST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우체국금융개발원(PoSID, 원장 신대섭)과 금융·AI 융합 분야 인재 양성 및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GIST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역량과 PoSID의 금융·디지털 전문성을 결합해 금융·AI 융합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학·연·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혁신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GIST에서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AI융합학과 김의환·박도현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PoSID에서는 신대섭 원장과 김옥경 디지털정보전략실장, 백만영 미래금융기획실장, 김칠년 디지털기술팀장, 허남훈 시스템품질팀장 등 관계자 10명이 자리했다.

GIST는 AI, 반도체, 첨단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및 국가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PoSID는 금융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 신기술 발굴을 추진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본격화한다.

첫째, 금융·AI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GIST의 교육·연구 역량과 PoSID의 금융·디지털 실무 경험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금융·AI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현장 견학, 채용설명회, 기술 세미나, 실무자 교류 프로그램 등 실질적 산학 교류 활동을 확대해 학생·연구자·실무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셋째, 금융·AI 융합 기반 공동연구를 추진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고도화,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보안, 차세대 금융 플랫폼 등 미래 금융 혁신 분야 기술 개발 및 실증 역량을 확대한다.

특히 공동연구 영역에서는 디지털 전환(DX), AI 기반 리스크 분석, 금융 자동화 기술, AI 보안 기술 등 금융 산업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폭넓게 검토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통해 미래 금융·AI 융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산업의 혁신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꾸준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오른쪽부터) GIST 임기철 총장과 PoSID 신대섭 원장이 11월 24일 협약식에 앞서 GIST 총장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IST 임기철 총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금융산업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으로서 핀테크 기술의 진보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혁신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술과 AI 기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GIST는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PoSID와의 협약이 앞으로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전과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oSID 신대섭 원장은 “우리 기관의 금융·디지털 전략기술과 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GIST의 첨단 연구 역량과 결합해 우체국금융시스템의 AI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